

2017년 8월 13일

오키나와국제대학 미군 헬기 추락으로부터 13년째를 맞이하여 (성명)

오키나와국제대학
이사장·학장 마에쓰 에이켄

2004년 8월 13일, 이 시간 이 자리에, 미군 헬기가 추락하여 불타오른 사고로, 학생, 교직원, 시민, 현민 모두를 공포에 떨게한 지 오늘로 13년째가 됩니다. 그 날의 추락 현장의 참사와, 미군의 부당한 사고 처리에 대한 시민과 현민의 강한 분노가, 세월의 흐름과 함께 희미해져 가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미군 헬기 추락사건 참사의 기억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헬기 추락사건에 대한 분노의 기억을 다시 한번 선명히 상기하여, 추락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후텐마 비행장의 폐쇄를 거듭 요구하고자, 여기에 강한 결의를 담아 「후텐마기지의 폐쇄를 요구하고, 평화의 귀중함을 전하는 집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성명을 발표하는 바입니다.

오키나와의 안전·안심·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은, 일본 전체 국토면적의 불과 0.6% 밖에 되지 않는 오키나와에, 주일 미군 전용시설의 70.4%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과, 미군 관련 사건이 수없이 발생해 왔다는 점에서 명백하다고 하겠습니다. 작년 4월에 발생한 참혹하기 그지없는 사건은 현민들에게 깊은 슬픔을 안겼으며, 작년 12월 나고시 아부해안에서 발생한 후텐마기지 소속의 오스프리 추락과, 최근 8월 5일 호주의 동부 해상에서도 발생한 오스프리 추락은, 우리들에게 13년전 참사의 기억을 다시금 되살리게 했습니다. 그 밖에도, 이에지마 보조비행장과 아미공항에 오스프리가 긴급착륙하는 등, 항공기 관련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군기지의 존재로 인한 위험성은 주지의 사실이며, 후텐마기지의 철거는 일본과 미국 양 정부에 의해 합의된 것이자, 현민 누구나 강하게 기대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총리대신을 비롯한 일본정부는, 오키나와의 미군기지 부담에 대한 경감을 몇 번이나 약속해 왔으나, 기노완시 중앙에 위치한 후텐마비행장의 상황은 개선되기는 커녕, 결함성이 지적된 오스프리가 후텐마비행장을 기지로 소음과 저주파를 발산하며 현내의 상공을 비행하고 있어, 그 위험성은 오히려 커져 가고만 있습니다. 또한, 현민들의 필사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헤노코 신기지 건설을 밀어 부치는 일본정부에 대한 오키나와 현민의 불신도, 증폭되어 가고만 있습니다.

오키나와국제대학은, 류큐·오키나와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영원해 온 「진정한 자유와 자치의 확립」을 건학정신으로,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세계로 열린 대학을 지향해 왔습니다. 안전·안심·평화에 대한 바람은, 대학인 뿐만 아니라, 사상이나 신조에 관계없이 만인이 원하는 것입니다. 대학과 지역사회의 평온과 안녕을 위협하는 후텐마비행장의 존속 하물며 고정화는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오키나와국제대학은, 본교에 헬기가 추락한 사건으로부터 13년째가 되는 오늘, 위험하기 짝이 없는 후텐마비행장을 즉각 폐쇄 철거할 것을, 다시 한번 일본과 미국 양 정부에 요구함과 동시에, 평화에 대한 오키나와의 간절함이 세계적으로 전해져 널리 공유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